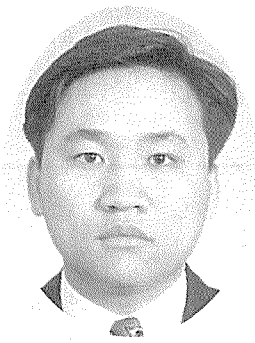


'97년 에너지 수급전망



전 민 영

〈통상산업부 자원정책과 사무관〉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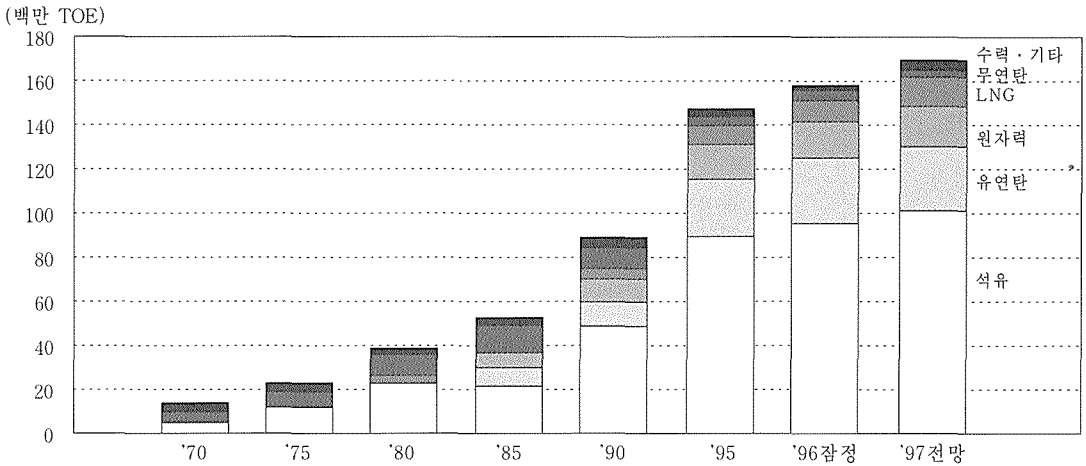
'97년 에너지수요는 예년과 같은 단순 추세치를 기준으로 전망할 경우 8.2%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의 증가는 최근 에너지가격의 급등과 더불어 에너지 수입액의 증가를 유발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년도에 획기적인 에너지소비절약 정책을 추진하여 에너지소비를 전년보다 7.2% 증가한 176,972천TOE(석유환산톤)로 억제키로 하였다. 금년도 에너지 수급전망은 이와 같은 목표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다.

〈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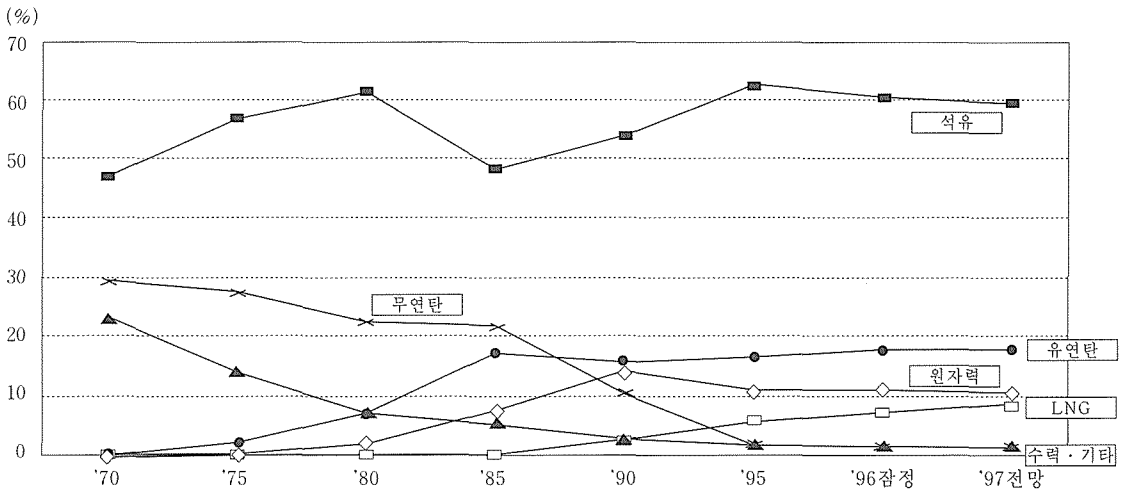
	1995	1996	1997	1997
		(잠정)	(추세치)	(목표치)
- 1차 에너지 소비증가율(%)	9.6	9.7	8.2	7.2
• 석유	9.0	6.5	6.0	5.5
• LNG	20.9	31.4	37.1	29.2
- 최종에너지 소비증가율(%)	8.6	8.4	8.5	7.2
• 산업부문	5.1	7.2	7.0	5.4
• 수송부문	13.8	8.9	8.8	8.2
• 가정·상업	13.0	10.3	11.1	10.0
- 에너지 수입액(A, 백만달러)	18,646	24,003	29,106	27,524
• 에너지 수출액(B, 백만달러)	2,147	3,455	5,103	5,494
• 순수입액(A-B, 백만달러)	16,499	20,548	24,003	22,030

에너지소비절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금년의 에너지 소비는 '96년의 증가율 9.7%(잠정)보다 크게 낮은 7.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GDP 백만원당 에너지 투입량(TOE)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는 지난 해와 같은 수준인 0.60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에너지의 GDP 탄성치는 에너지 소비증가율 둔화에 따라 지난 해보다 크게 개선된 1.1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1〉 에너지소비 증가 추이



〈그림-2〉 에너지소비 구성비 변화 추이



2. 에너지원별 수요전망

그동안 높은 증가추세를 보여오던 석유는 산업 및 수송부문의 소비증가율이 크게 낮아져 5.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에너지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59.4%로 낮아지는 반면, 최근

높은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LNG의 비중은 8.8%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깨끗하고 편리한 에너지를 선호함에 따라 전력,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열)의 소비증가율은 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보다 높은 각각 10.1%, 24.1%, 1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2〉 '97 주요 에너지관련 지표

	단 위	1993	1994	1995	1996(잠정)	1997(전망)
1차에너지 소비	천TOE	126,879	137,235	150,437	165,016	176,972
(증가율)	(%)	(9.4)	(8.2)	(9.6)	(9.7)	(7.2)
최종에너지 소비	천TOE	104,048	112,206	121,849	132,056	141,523
(증가율)	(%)	(10.0)	(7.8)	(8.6)	(8.4)	(7.2)
에너지/GDP탄성치	-	1.62	0.95	1.07	1.41	1.13
에너지원단위	TOE/90불변 백만원	0.58	0.59	0.58	0.60	0.60
1인당 에너지소비	TOE/人·年	2.88	3.09	3.35	3.65	3.85
(증가율)	(%)	(8.4)	(7.3)	(8.4)	(9.0)	(5.5)
1인당 전력 소비량	KWH/人·年	2,899	3,297	3,640	4,032	4,366
(증가율)	(%)	(9.9)	(13.8)	(10.4)	(10.8)	(8.3)
하루 석유 소비량	천 B/D	1,547	1,703	1,855	1,975	2,084
(증가율)	(%)	(9.8)	(10.1)	(8.9)	(6.5)	(5.5)
에너지 해외의존도	%	94.8	96.4	96.8	97.3	97.4
석유의존도	%	61.9	62.9	62.5	60.5	59.4
에너지 수입액	백만달러	15,099	15,269	18,646	24,003	27,524
(증가율)	(%)	(4.3)	(1.1)	(22.1)	(28.7)	(14.7)
총수입에 대한 에너지 수입비중	%	18.0	14.9	13.8	16.0	17.6
석유수입액	백만달러	12,421	12,383	15,265	19,712	22,392
(증가율)	(%)	(2.6)	(-0.3)	(23.3)	(29.1)	(13.6)
GDP성장율	%	5.8	8.6	9.0	6.9	6.4

〈주〉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추정치

〈표-3〉 '97 석유 수급전망

(단위 : 천배럴, %)

	공 급	수 요								기말 재고
		국 내 수 요						수출· 기 타	합 계	
		산 업	수 송	가정 상업	공 공	발전·가스 제조	계			
합 계	1,085,801	293,125	228,865	156,200	10,700	71,790	760,700	284,700	1,045,400	27,695
휘발유	82,725	1,630	73,320	460	390	-	75,800	5,100	80,900	1,825
등 유	91,997	8,575	295	74,580	850	-	84,300	3,900	88,200	3,797
경 유	275,321	31,710	95,360	35,550	5,100	12,980	180,700	80,500	268,100	7,221
B-A유	7,169	4,970	940	320	20	-	6,250	600	6,850	319
B-B유	1,829	1,100	360	260	30	-	1,750	-	1,750	79
B-C유	268,094	69,570	22,970	14,110	900	49,750	157,300	103,300	260,600	7,494
JA-1	48,587	-	16,720	-	2,620	-	19,340	21,700	47,940	647
JP-4	733	-	-	-	710	-	710	-	710	23
나프타	203,224	150,500	-	-	-	-	150,500	47,700	198,200	5,024
용 제	807	750	-	-	-	-	750	-	750	57
프로판	53,618	9,640	220	30,850	80	9,060	49,850	3,400	53,250	368
부 탄	25,174	2,980	18,680	90	-	-	21,750	3,000	24,750	424
아스팔트	13,817	11,700	-	-	-	-	11,700	1,700	13,400	417

〈주〉 1. 공급에는 반제품(12.7백만배럴), 수출·기타에는 국제병커링 및 미군납 포함.

2. ()는 전년대비 증가율

〈표-4〉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단위 : %)

		1995	1996(잠정)		1997(전망)			
				증가율	구성비		증가율	구성비
석유	천배럴	677,210	721,041	6.5	60.5	760,700	5.5	59.4
LNG	천톤	7,087	9,309	31.4	7.3	12,024	29.2	8.8
무연탄	천톤	6,263	5,245	-16.3	1.5	4,831	-7.9	1.3
유연탄	천톤	38,089	44,811	17.6	17.9	48,629	8.5	18.1
원자력	GWH	67,029	73,924	10.3	11.2	75,862	2.6	10.7
수력	GWH	5,478	5,202	-5.0	0.8	6,044	16.2	0.9
기타	천TOE	1,051	1,161	10.5	0.7	1,344	15.8	0.8
1차 에너지	천TOE	150,437	165,016	9.7	100.0	176,972	7.2	100.0
전력	GWH	163,270	182,427	11.7	-	200,800	10.1	-
도시가스	백만m ³	5,221	6,733	29.0	-	8,355	24.1	-
열에너지	Tcal	6,413	8,095	26.2	-	9,616	18.8	-

(1) 석유

'97년도 석유수요는 경제성장 둔화추세 지속, 수송 및 가정·상업부문의 수요증가 추세 둔화 등으로 지난 해보다 5.5% 증가한 760.7백만배럴에 그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산업부문의 석유수요가 경제성장 둔화 추세에 따라 지난 해보다 낮은 4.7% 증가에 그칠 것

으로 예상되고,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여 오던 수송 부문은 차량의 증가율 둔화, 교통세 인상 및 산업경기 위축에 따른 화물수송량 증가세 둔화 등으로 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상업부문의 경우는 도시가스, 전력 등으로의 연료대체에 따라 소비증가율이 7.9%로 크게 낮아지고, 발전용 석유소비자는 원자력, 유연탄 및 LNG 복합화력발전소 준공 등에 따라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에너지 수요중 석

〈표-5〉 석유수요 전망

	1995	1996(잠정)	1997(전망)
○ 석유수요(천배럴, %)	677,210(9.0)	721,041(6.5)	760,700(5.5)
• 연료용	535,479(9.7)	568,386(6.1)	597,750(5.2)
• 원료용	141,731(6.3)	152,655(7.7)	162,950(6.7)
- 산업용	266,039(2.9)	279,885(5.2)	293,125(4.7)
• 나프타	131,474(6.7)	141,265(7.4)	150,500(6.5)
- 수송용	193,711(13.7)	211,258(9.1)	228,865(8.3)
• 휘발유	57,043(16.7)	65,533(14.9)	73,320(11.9)
• 경유	86,416(12.6)	91,080(5.4)	95,360(4.7)
- 가정·상업용	131,803(14.2)	143,312(8.7)	154,675(7.9)
- 발전용	62,201(11.1)	63,384(1.9)	63,352(-0.1)
○ 1차 에너지중 비중(%)	62.5	60.5	59.4

〈주〉 ()는 전년대비 증가율

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59.4%로 낮아질 전망이다.

(2) LNG

도시가스용 LNG 수요는 영남권(구미, 울산, 창원 등)의 공급 확대 및 가스냉·난방 수요증가 등으로 지난해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발전용 역시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LNG 수요는 전년보다 29.2% 증가한 12,024천톤에 이를 전망이다이며, 이에 따라 1차 에너지중 LNG의 비중도 8.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무연탄

연탄용 수요가 큰 폭의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전용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연탄 수요는 전년보다 7.9% 감소한 4,831천톤에 그칠 전망이다이며, 1차 에너지중 차지하는 비중도 1.3%로 낮아질 전망이다.

(4) 유연탄

제철용인 원료탄의 경우는 철강 생산량의 증가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지난 해보다 낮은 3.2% 증가하고, 발전용 및 산업용의 경우도 지난 해 보다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 유연탄 수요는 전년보다 8.5% 증가한 48,629천톤에 그칠

〈표-6〉 LNG 수요전망

	1995	1996(잠정)	1997(전망)
- LNG 수요(천톤, %)	7,087(20.9)	9,309(31.4)	12,024(29.2)
• 도시가스용	3,417(39.4)	4,622(35.3)	6,314(36.6)
• 발전용	3,562(7.0)	4,561(28.0)	5,593(22.6)
- 1차 에너지중 비중(%)	6.1	7.3	8.8

〈주〉 ()는 전년대비 증가율

〈표-7〉 무연탄 수요전망

	1995	1996(잠정)	1997(전망)
- 무연탄 수요(천톤, %)	6,263(-17.0)	5,245(-16.3)	4,831(-7.9)
• 연탄용	3,005(-35.8)	1,898(-36.8)	1,499(-21.0)
• 발전용	2,421(10.4)	2,450(1.2)	2,500(2.0)
- 1차 에너지중 비중(%)	2.0	1.5	1.3

〈주〉 ()는 전년대비 증가율

〈표-8〉 유연탄 수요전망

	1995	1996(잠정)	1997(전망)
- 유연탄 수요(천톤, %)	38,089(8.5)	44,811(17.6)	48,629(8.5)
• 제철용	16,305(3.5)	17,304(6.1)	17,856(3.2)
• 발전용	14,229(15.0)	19,019(33.7)	22,003(15.7)
• 산업용	7,555(8.2)	8,488(12.3)	8,770(3.3)
- 1차 에너지중 비중(%)	16.7	17.9	18.1

〈주〉 ()는 전년대비 증가율

전망이다.

(5) 원자력

원자력은 금년 6월 700MW급의 월성원자력 2호기가 준공될 예정이어서 총발전량이 지난 해보다 2.6% 증가한 75,862GWH에 이를 전망이며, 원전시설 이용율은 지난 해보다 다소 낮은 85.5%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1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최대 전력수요가 금년에도 전년대비 10.8%가 증가한 35,758KW를 기록할 것에 대비하여 태안 삼천포, 하동화력 및 서인천 복합화력 등 화력발전소 건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총발전량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33.5%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6) 수력·기타

수력발전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었던 지난해 (5대강 유역 1,137mm)보다 16.2%가 증가한 6,044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부분은 신

탄의 경우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확대로 지난 해보다 15.8% 증가할 전망이다.

(7) 에너지 전환부문 (전력,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최근 5년간('92-'96) 연평균 11.0%의 증가추세를 보여온 최대전력수요는 금년에도 지난 해보다 10.8%가 증가한 35,758k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전력수요도 200,800GWH로 전년대비 10.1%의 높은 증가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도시가스 수요는 깨끗하고 편리한 에너지 선호, 환경보호를 위한 도시가스보급 확대정책 등으로 금년에도 24.1%의 높은 증가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며, 특히 남부권(구미, 울산, 창원)에 대한 LNG 공급확대로 도시가스용 에너지 수요에서 LNG의 비중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난방은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공급원으로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어 왔으며, 금년에도 서울시 일원·노원지역 난방공급의 확대와 대구·수원

〈표-9〉 원자력 수요전망

	1995	1996(잠정)	1997(전망)
- 원자력 발전량(GWH, %)	67,029(14.3)	73,924(10.3)	75,862(2.6)
- 원전시설 이용율(%)	87.3	87.5	85.5
- 발전량중 원자력비중(%)	36.4	36.0	33.5

〈주〉 ()는 전년대비 증가율

〈표-10〉 전력,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의 수요전망

(단위 : %)

	단 위	1996(잠정)		1997(전망)	
			증가율		증가율
전 력	GWH	182,427	11.7	200,800	10.1
도시가스	백만m ³	6,733	29.0	8,355	24.1
지역난방	Tcal	8,095	26.2	9,616	18.8

지역의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 준공으로 열공급량이 지난해에 비해 18.8% 증가할 전망이다.

3. 부문별 에너지수요 전망

'97년 최종에너지 수요는 지난 해 증가율 8.4%보다 낮은 7.2%가 증가한 141,523천TOE에 이를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최종에너지 수요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경우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보다 낮은 5.4%의

소비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송부문은 차량증가율 둔화, 교통세 인상 및 산업경기 위축에 따른 화물수송량 증가세 둔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8.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그동안의 높은 증가추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가정·상업부문은 전력 및 도시가스의 수요급증 추세가 계속되어 10.0%의 높은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산업부문

'97년 산업부문 에너지수요는 최근의 경제성장 둔

〈표-11〉 부문별 에너지 수요전망

(단위 : 천TOE, %)

	1995	1996(잠정)	1997(전망)		1997(전망)	1997(전망)		
			증가율	구성비		증가율	구성비	
부문별	산업부문	62,946	67,493	7.2	51.1	71,131	5.4	50.3
	수송부문	27,148	29,575	8.9	22.4	31,987	8.2	22.6
	가정·상업부문	29,339	32,351	10.3	24.5	35,597	10.0	25.2
	공공·기타 부문	2,416	2,637	9.2	2.0	2,808	6.5	2.0
	최종에너지 계	121,849	132,056	8.4	100.0	141,523	7.2	100.0
에너지원별	석유(천배럴)	601,515	645,008	7.2	67.2	687,365	6.6	66.6
	무연탄(천톤)	3,482	2,795	-27.3	1.2	2,331	-16.6	0.9
	유연탄(천톤)	23,860	25,792	8.1	12.9	26,626	3.2	12.4
	전력(GWH)	163,270	182,427	11.7	11.9	200,800	10.1	12.2
	도시가스(백만m ³)	5,221	6,733	29.0	5.4	8,355	24.1	6.2
	열에너지(Tcal)	6,413	8,095	26.2	0.6	9,616	18.8	0.7
기타(천TOE)	1,051	1,161	10.5	0.9	1,344	15.8	0.9	

〈표-12〉 산업부문 에너지수요 구조

	1995	1996(잠정)	1997(전망)		1997(전망)	1997(전망)	
			증가율	구성비		증가율	구성비
석유(천배럴)	266,039	279,885	5.2	57.3	293,125	4.7	56.6
무연탄(천톤)	837	897	7.2	0.8	832	-7.2	0.7
유연탄(천톤)	23,860	25,792	8.1	25.2	26,626	3.2	24.7
전력(GWH)	96,436	106,720	10.7	13.6	115,695	8.4	14.0
도시가스(백만m ³)	822	1,139	38.6	1.8	1,646	44.5	2.4
기타(천TOE)	736	912	23.9	1.4	1,123	23.2	1.6
소비 계(천TOE)	62,946	67,493	7.2	100.0	71,131	5.4	100.0

화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해보다 5.4% 증가한 71,131천TOE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석유가 나프타등 원료유의 소비증가 추세가 크게 둔화되어 4.7%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제철용 원료탄인 유연탄 소비도 철강생산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낮은 3.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 수송부문

'97년 수송부문의 에너지수요는 지난 해보다 낮은 8.2% 증가한 31,987천TOE에 이를 전망이다. 수송부문 에너지수요의 43.6%를 차지하는 경유는 전반적인 경제 위축에 따른 화물수송량 증가세 둔화 등으로 지난 해보다 다소 낮은 4.7%가 증가하고, 자가용 승용

차 보급증가율 둔화, 교통세 인상 등으로 휘발유 수요는 전년보다 크게 낮은 11.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가정·상업부문

'97년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수요는 지난 해보다 10.0%가 증가한 35,597천TOE에 이를 것으로 보여 최근의 높은 에너지소비 증가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석유의 소비 증가세 둔화와 연탄소비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석유 및 무연탄의 비중은 각각 1.2%p, 0.7%p 낮아지는 반면,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깨끗하고 편리한 연료인 전력,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은 높은 소비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13〉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구조

	1995	1996(잠정)		1997(전망)			
		증가율	구성비	증가율	구성비		
석유(천배럴)	193,711	211,258	9.1	99.5	228,865	8.3	99.5
- 휘발유	57,043	65,533	14.9	29.2	73,320	11.9	30.2
- 경유	86,416	91,080	5.4	45.0	95,360	4.7	43.6
- B-C유	19,189	21,306	11.0	11.3	22,970	7.8	11.3
- 항공유	13,335	14,520	8.9	6.8	16,720	15.2	7.2
전력(GWH)	1,607	1,642	2.2	0.5	1,771	7.9	0.5
소비 계(천TOE)	27,148	29,575	8.9	100.0	31,987	8.2	100.0

〈표-14〉 가정·상업부문 에너지 수요구조

	1995	1996(잠정)		1997(전망)			
		증가율	구성비	증가율	구성비		
석유(천배럴)	131,803	143,312	8.7	59.2	154,675	7.9	58.0
무연탄(천톤)	3,005	1,898	-36.8	3.1	1,499	-21.0	2.4
전력(GWH)	55,827	63,667	14.0	16.9	71,677	12.6	17.3
도시가스(백만m ³)	4,280	5,438	27.1	17.7	6,528	20.0	19.3
열에너지(Tcal)	6,315	7,967	26.2	2.5	9,426	18.3	2.6
기타(천TOE)	265	192	-27.6	0.6	154	-19.6	0.4
소비 계(천TOE)	29,339	32,351	10.3	100.0	35,597	10.0	100.0

4. 에너지 수출입 전망

에너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도입단가 상승에 따라 '97년 에너지수입액은 전년보다 14.7% 증가한 27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에너지

수출액도 국내 석유제품 생산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59.0% 증가한 5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 에너지 순수입액은 7.2% 증가한 22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표-15〉 에너지 수출입 전망

	1995	1996(잠정)	1997(전망)
- 에너지 수입액(백만달러) (증가율, %)	18,646 (22.1)	24,003 (28.7)	27,524 (14.7)
- 에너지 수출액(백만달러) (증가율, %)	2,147 (48.1)	3,455 (60.9)	5,494 (59.0)
- 에너지순수입액(백만달러) (증가율, %)	16,499 (19.4)	20,548 (24.5)	22,030 (7.2)

〈표-16〉 에너지 수출입 전망(계속)

(단위 : 백만달러, %)

		1995		1996(잠정)		1997(전망)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 석유	백만배럴	849.4 (9.2)	15,265 (23.3)	952.8 (12.2)	19,712 (29.1)	1,040.3 (9.2)	22,392 (13.6)
- 원유	백만배럴	624.9 (8.9)	10,825 (21.4)	721.9 (15.5)	14,517 (34.1)	844.9 (17.0)	17,718 (22.1)
*도입단가	\$/B	-	17.32 (11.4)	-	20.11 (16.1)	-	20.97 (4.3)
- 제품	백만배럴	224.5 (10.1)	4,440 (28.2)	230.9 (2.9)	5,195 (17.0)	195.4 (-15.4)	4,674 (-10.0)
○ 석유수출 (A)	백만배럴	115.5 (32.2)	2,147 (48.1)	150.5 (30.3)	3,455 (60.9)	228.7 (52.0)	5,494 (59.0)
○ LNG	천톤	7,055 (19.0)	1,124 (21.6)	9,595 (36.0)	1,854 (64.9)	12,199 (27.1)	2,496 (34.6)
○ 무연탄	천톤	778 (11.8)	38 (15.2)	867 (11.4)	45 (18.4)	802 (-7.5)	43 (-4.4)
○ 유연탄	천톤	43,166 (11.5)	2,019 (17.5)	45,135 (4.6)	2,183 (8.1)	48,573 (7.6)	2,330 (6.7)
○ 우라늄	-	-	200 (-5.2)	-	209 (4.5)	-	263 (25.8)
총에너지 수입액(B)	백만달러	-	18,646 (22.1)	-	24,003 (28.7)	-	27,524 (14.7)
순수입액(C) (B-A)	백만달러	-	16,499 (19.4)	-	20,548 (24.5)	-	22,030 (7.2)
총수입액 (D)	백만달러	-	135,119 (32.0)	-	150,210 (11.2)	-	156,000 (3.9)
에너지수입비중(B/D) (순수입비중, C/D)	%	-	13.8 (12.2)	-	16.0 (13.7)	-	17.6 (14.1)

〈주〉 1. 금액은 CIF 가격기준 2. ()는 전년대비 증가율